

예레미야서 번역의 몇 가지 문제

박동현*

이 글에서는 구약성서 히브리 본문¹⁾을 우리말로 옮길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몇 가지를 예레미야서에서 찾아 살펴보기로 한다. 그 가운데 어떤 문제는 예레미야서에 고유하거나 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구약성서의 다른 책에서도 부딪치는 문제이다.

아래에서는 **1.** 예레미야서의 표제²⁾인 1장 1-3절을 보기로 히브리 본문을 한글로 옮길 때 생각해야 할 점들을 살펴 본 뒤에, **2.** 같은 히브리 표현이 예레미야서 여러 곳에 나올 경우에 이를 될 수 있으면 한결같이 번역함이 좋다는 점을 생각해 보고, **3.** 뒤이어 구약의 다른 책의 일부분이 예레미야서에 인용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관련성 있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4.** 예레미야서 본문이 신약에 인용되었을 경우 번역에서는 이 둘을 어떻게 관련지을 것인가를 따져보려고 한다.

『공동번역』이 나온 뒤부터 한글 성서 번역에서도 형식의 일치보다는 내용의 동등성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³⁾. 그런데, 번역할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에서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성서 번역의 훈련 과정에서는 일단 번역할 본문의 문법 구조와 어휘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그것을 번역에서 최대한 살리도록 애쓸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주로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예레미야서 번역의 실재를 조금이라도 함께 맞보려고 한다.

* 장로회신학대학교, 구약학

- 1) 이 글에서는 최근에 Young-Jin Min, "The Two Different Books of Jeremiah Should Be Edited Independently and Sequentially," 『성경원문연구』 7 (2000), 61-99 에서 다시 간추려 다룬, 예레미야서의 마소라 본문과 칠십인역 본문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일단 Wilhelm Rudolph, ed., *Liber Jeremiae*,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8 (Stuttgart: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970)와 C. Rabin, S. Talmon, and E. Tov, eds., *The Book of Jeremiah*, Hebrew University Bible Project 2 (Jerusalem: Magnes Press, 1997)에서 기본 본문으로 제시한 마소라 본문의 한글 번역 문제에 집중하고, 칠십인역은 필요한 경우에만 인용하기로 한다.
- 2) 이 글에서는 ‘표제(標題)’를 한글학회 엮음, 『우리말큰사전』 (서울: 어문각, 1992), 4460 에서 제시하는 여섯 가지 뜻 가운데서 첫째인 ‘서책의 겉에 쓰인 그 책의 이름’이나 둘째인 ‘연설, 담화 같은 것의 제목’이라는 뜻으로 쓰기로 한다.
- 3) 『공동번역 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의 머리말을 보라.

1. 1장 1절-3절의 번역 문제

1.1. 히브리 본문의 짜임새

1장 1절-3절의 예레미야서의 표제인데, 이는 구약 예언서의 표제 가운데서는 가장 길다⁴⁾. 그만큼 그 짜임새가 복잡하여, 이를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 아래 도표에서는 이 석 절의 문법적 짜임새를, 한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히브리어⁵⁾ 본문과 『개역개정판』 번역문의 두 가지로 그려보았다.

- ㉠ <디브레 이르므야후>
- ㉡ <벤 힐기야후>
- ㉢ <민 학코하남>
- ㉣ <아세르 브아나툓 브에레츠 빈야민>
- ㉤ <아세르 하야 드바르 아도나이 엘라우>
- ㉥ <비메 요쉬야후 벤 아몬 멜렉 여후다>
- ㉦ <비셀로쉬 에스레 샤나 르몰코>
- ㉧ <와여히>
- ㉨ <미메 여호야킴 벤 요쉬야후 멜렉 여후다>
- ㉩ <앗 톱 아쉬데 에스레 샤나 르킷기야후 벤 요쉬야후 멜렉 여후다>
- ㉪ <앗 글롯 여루살라임 바호데쉬 하마미쉬>

- ㉠ 예레미야의 말이라
- ㉡ 힐기야의 아들
- ㉢ 제사장들 중
- ㉣ 베냐민 땅 아나돗의
- ㉤ 여호와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 ㉥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 ㉦ 다스린 지 십삼 년에
- ㉧ (임하였)고 임하니라
- ㉨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킴 시대부터
- ㉩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십일년 말까지

4) 세 큰 예언서와 열두 작은 예언서 가운데 에스겔과 요나와 학개와 스가랴에만 표제가 없다.
 5) 이 글에서는 히브리 낱말을 일단 한글로 음역한 것을 < > 안에 넣어 적기로 한다. 히브리 낱말의 한글 음역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합의된 바가 없다. 필자가 『성경원문연구』 8 (2001), 106-157에 발표한 “개역한글판의 히브리어 고유명사 한글 음역 방식과 히브리어 한글 음역 시안”을 따르기로 한다.

㉔ 곧 오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 표제의 핵심은 <디브레 이르므야후>('예레미야의 말이라')⁶라는 명사구이다. 이 명사구를 이루는 두 낱말 가운데 고유명사인 <이르므야후>('예레미야')를 꾸미는 말로 <벤 힐키야후>('힐기야의 아들')라는 동격 명사구가 뒤따르고, 그 뒤에 <힐키야후>에 걸리는 전치사구 <민 학코하님>('제사장들 중')⁷이 있다.

이 전치사구 다음에 <아세르> 문장이 둘 나온다. 첫 <아세르> 문장은 <아세르 브어나돗 브에레츠 빈야민>('베냐민 땅 아나돗의')으로 간단하다. 이 문장으로 써 1절은 끝나는데, 글의 흐름으로 보아 이 <아세르> 문장은 그 선행사가 <학코하님>('제사장들')인 관계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아세르> 문장의 중심 부분은 <아세르 하야 드바르 아도나이 엘라우>('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이고, 시점을 알려주는 두 개의 전치사구인 <비메 요쉬야후 벤 아몬 멜렉 여후다>('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와 <비셀로쉬 에스레 샤나 르물코>('다스린 지 십삼 년에')가 뒤따르면서, 2절이 끝난다.

3절은 <와우> 미완료 연속법으로 시작하므로, 2절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3절은 다시 그 <와우> 미완료 연속법 동사인 <와여히>('임하나라')와 첫 시점을 말하는 전치사구 <미메 여호야킴 벤 요쉬야후 멜렉 여후다>('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킴 시대부터')와 마지막 시점을 표현하는 두 개의 전치사구 <앗 톱 아쉬테 에스레 샤나 르치키야후 벤 요쉬야후 멜렉 여후다>('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십일년 말까지')와 <앗 글롯 여루살라임 바호데쉬 하하미쉬>('곧 오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3절도 2절 첫머리의 관계사 <아세르>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둘째 <아세르> 문장은 2절과 3절 전체라 할 수 있다. 이 <아세르>를 앞의 경우처럼 관계사로 이해한다면, 그 선행사가 <이르므야후>이겠지만,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사로 보는 것이 더 낫다⁸).

이제 1절-3절의 이런 복잡한 짜임새를 염두에 두고 이 표제를 한글로 옮길 때 생각해 볼 몇 가지 문제를 하나씩 알아보자.

1.2. 각 부분의 번역

6) 이 글에서 한글 음역 뒤 () 안에 적어 넣은 번역은 『개역개정판』의 번역이다. 사역(私譯)을 쓸 경우에는 사역을 먼저 적고 뒤이어 () 안에 한글 음역을 넣기로 한다.

7) *Holy Bibl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1995)에서는 <민 학코하님>이 <이르므야후>에 걸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래 각주 25)를 보라.

8)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아래 2(3)과 II.2(4)에 나온다.

(1) ① <디브레 이르므야후>

남성 복수 연계형 명사인 <디브레>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문제를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이 복수형 히브리 낱말을 한글로 옮길 때 그대로 복수형으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단수로 옮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둘째, 이 명사의 뜻을 ‘말’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셋째, 연계형의 의미를 소유의 의미로 보아 ‘...의’로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목적격 속격으로 보아 ‘...에 대한’으로 번역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이 세 문제는 서로 얽혀 있다.

① 히브리 명사와는 달리 우리말에서는 단수와 복수를 그리 엄격하게 구별해서 쓰지 않는다. 단수를 쓰더라도 문맥에 따라 그것이 실제로 단수를 가리키는지 복수를 가리키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언서의 표제에 <다바르>가 쓰이는 경우에 여섯 번은 단수로 쓰이는데(호 1:1; 율 1:1; 습 1:1; 숙 9:1; 12:1; 말 1:19), 한결같이 <드바르 아도나이>('여호와와 말씀')이란 고정된 어구에 들어 있다. <다바르>가 복수로 쓰인 경우는 예레미야와 아모스 둘 뿐인데, 두 경우 다 복수 연계형 뒤에 예언자의 이름이 붙어 있다.

<드바르 아도나이>는 야웨로부터 비롯되는 말씀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므로, 이를 ‘여호와와 말씀’이라고 옮기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디브레 이르므야후>는, <다바르>를 일단 ‘말’로, 또 연계형을 소유격 표현으로 이해할 경우에, 예레미야가 전한 개별적인 말씀을 합한 것을 가리키므로, ‘예레미야의 말들’이라고 할 만하다. 그렇지만, 우리말에서는 굳이 ‘말들’이라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¹⁰⁾.

② ③ 그런데, 예언서에 예언자가 전한 말만 들어 있지 않다.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특히 많이 읽을 수 있는 예언서가 예레미야서이다. 예레미야서의 산문 부분에서는 예언자가 겪은 일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게다가, 히브리 낱말 <다바르>가 ‘말’을 뜻할 뿐 아니라 ‘일’,

9) 숙 9:1; 12:1; 말 1:1에는 <맛사>('경고') 다음에 <드바르 아도나이>가 나온다.

10) William McKane,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Jeremiah*, Vol. I: *Introduction and Commentary on Jeremiah I-XXV*,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T Clark, 1986), 1 에서는 <디브레 이르므야후>를 a record of the words spoken by Jeremiah로 옮겼다. 칠십인역에는 <디브레 이르므야후>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이는 <드바르 엘로힘 아세르 하야 엘 이르므야후>를 떠올리게 하는 번역인데, 무엇보다도 ‘여호와와 말씀’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점이 독특하다.

‘사건’도 뜻할 수 있다. 그렇다면, <디브레 이르므야후>도 ‘예레미야의 말(들)’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일들’ 곧 예레미야가 겪은 일들, 또는 예레미야에 관한 사건들이란 뜻으로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공동번역』이 <디브레 이르므야후>를 ‘예레미야 일대기’로 옮긴 것은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¹¹⁾. 최근에는 <디브레 이르므야후>가 실제로는 예레미야의 말과 행동을 가리키므로, 이를 넓은 뜻으로 이해하여 ‘예레미야의 유산(the legacy of Jeremiah)’으로 번역하자고 제안하는 학자도 있다¹²⁾. 우리로서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라고 번역하면 좋으리라 생각한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도 뜻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³⁾.

(2) ㉞ <민 학코하님>

<민 학코하님>을 직역하면, “그 제사장들로부터” 또는 “그 제사장들 가운데에”가 된다. 『표준새번역』의 “제사장 출신인”은 첫 견해를 반영하고, 『개역한글판』의 ‘제사장 중’과 『개역개정판』의 ‘제사장들 중’은 둘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치사 <민>이 부분을 가리킨다고 보면, “그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로 옮길 만하다. 공동번역의 “사제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보기이다.

(3) ㉟ <아세르 하야 드바르 아도나이 엘라우>의 번역

이 문장을 1절의 둘째 낱말 <이르므야후>와 한데 묶어 읽으면, 그 전체를 “야훼의 말씀이 임한 예레미야”로 번역할 수 있다¹⁴⁾. 그렇지만, 14장 1절과 46장 1절과 47장 1절과 49장 34절에 선행사 없이 독립적인 문장으로 표제로 쓰이는 <아세르 하야 드바르 아도나이 엘 이르므야후 ... >를 옆두에 두면¹⁵⁾, 1장 2절의

11) 이 글에서 『표준새번역개정판』과 『공동번역개정판』의 번역은 그것이 각각 『표준새번역』과 『공동번역』과 다를 경우에만 인용하기로 한다. 뒤집어 말하면, 따로 『표준새번역개정판』과 『공동번역개정판』을 언급하지 않을 때는, 개정판이 각각 『표준새번역』과 『공동번역』 그대로임을 뜻한다.

12) Jack R. Lundbom, *Jeremiah 1-20*, The Anchor Bible 21A (New York: Doubleday, 1999), 222.

13) Wilhelm Rudolph, *Jeremia*, 3rd ed.,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Erste Reihe 12 (Tübingen: J.C.B.Mohr, 1968), 2의 번역, Geschichte Jeremias도 마찬가지로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14) Wilhelm Rudolph, *Jeremia*, 2; Siegfried Herrmann, *Jeremia*,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XII/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6), 1; Robert P. Carroll, *Jeremiah*,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86), 89; Peter C. Craigie, Page H. Kelly, and Joel F. Drinkard Jr., *Jeremiah 1-25*, Word Biblical Commentary 26 (Dallas, Texas: Word Books, 1991), 1; J. R. Lundbom, *Jeremiah 1-20*, 3; 221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1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아래 II.2(4)에 나온다.

<아세르 하야 드바르 아도나이 엘라우>도 또 하나의 표제, 곧 두 번째 표제로 볼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이 문장은 “야훼의 말씀으로 그에게 임한 바¹⁶⁾” 정도로 직역할 수 있는데¹⁷⁾, 이는 곧 1절 맨 앞의 ‘예레미야의 <다바르>들’과 동격을 이룬다고 볼 만하다. 1-3절의 복잡한 구조를 생각한다면, 2-3절을 1절과 동격을 이루는, 또 하나의 표제로 이해하는 것이, 2-3절을 <이르므야후>를 꾸미는 관계문으로 보는 것보다 번역 작업에 더 유리하리라 생각한다.

야훼의 말씀을 주어로 하는 동사 <하야>를 우리말로 제대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판』에서는 ‘임하다’로 번역했지만, <하야>는 이 경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뜻하므로, 단순히 ‘오다’를 뜻하는 ‘임하다’라는 말로는 그 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 공동번역이나 천주교새번역¹⁸⁾에서 이를 ‘내리다’로 옮긴 것은 한국 토속 종교의 ‘신 내림’을 떠올리게 한다.

(4) ㉠ <비메 요쉬야후 벤 아몬 멜렉 여후다>와 ㉡ <비셀로쉬 에스레 샤나 르물코>

<비메 요쉬야후 벤 아몬 멜렉 여후다>에서 <벤 아몬>과 <멜렉 여후다>는 둘 다 <요시야후>에 걸리는 동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어구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로 옮길 수 있다. <비셀로쉬 에스레 샤나 르물코>는 “그가 왕이 된 지 열 셋째 해에”로 번역할 만하다. 이는 바로 앞 전치사구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려준다. 거의 대부분의 번역본에서는 이 둘을 한데 묶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왕이 된 지 열 셋째 해에”라는 식으로 옮긴다. 그렇지만, 히브리 본문의 분위기를 살리자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그것도) 그가 왕이 된 지 열 셋째 해에”로 번역할 만하다.

(5) ㉢ <와여히>

와우 미완료 연속법인 <와여히>는 앞 문장의 주어인 <드바르 아도나이>와 전

16) 이 경우 우리말의 끝 부분인 ‘바’는 “풀이씨의 매김풀 ‘-ㄴ(은, 는), ㄹ(을), -던’ 다음에 쓰이어, 앞엿말의 그 내용(사실)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한글학회 엮음, 『우리말큰사전』, 1576.

17) William L. Holladay, *Jeremiah 1: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Chapters 1-25*,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14 의 번역, what came as the word of Yahweh to him이 바로 이런 견해를 반영한다.

18) 『예레미야 · 바룩』, 정태현 번역, 구약성서 새 번역 8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6)을 말한다.

치사구인 <엘라우>가 이 연속 문장에서도 여전히 주어와 전치사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뒤이어 시간을 나타내는 세 개의 전치사구가 나온다.

- (6) ㉞ <미페 여호야킴 벤 요쉬야후 멜렉 여후다>,
 ㉟ <앗 톰 아쉬테 에스레 샤나 르킷키야후 벤 요쉬야후 멜렉 여후다>,
 ㊱ <앗 글롯 여루살라임 바호데쉬 하마미쉬>의 번역

<미페 여호야킴 벤 요쉬야후 멜렉 여후다>는 2절에서 처음으로 말한 말씀 임함의 사건 다음으로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 때를 알려주는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킴의 시대부터”라고 옮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이 임한 사건이 끝난 때를 표현하는 두 개의 전치사구가 뒤따르는데, 그 첫 전치사구가 <앗 톰 아쉬테 에스레 샤나 르킷키야후 벤 요쉬야후 멜렉 여후다>이다. 이는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열한 번째 해가 다하기까지”로 번역할 수 있다. 말씀 임함이 끝난 때를 알려주는 둘째 전치사구 <앗 글롯 여루살라임 바호데쉬 하마미쉬>는 “예루살렘이 다섯째 달에 사로잡혀가기까지”로 직역할 수 있다. 이 전치사구는 바로 앞의 전치사에서 말한 바를 다른 식으로 더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은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열한 번째 해가 다하기까지, (곧)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로 이어 번역할 만하다.

1.3. 1-3절 전체의 번역

(1) 히브리 본문에서는 하나로 죽 이어지는 1-3절을 번역본에서는 보통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 옮긴다¹⁹⁾.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판』에서는 1절을 2-3절과 끊어서 전체를 두 부분으로 번역했다²⁰⁾. 한글 공인번역본 가운데서 내용의 동등성을 가장 강하게 겨냥하는 공동번역에서는 ‘예레미야의 일대기’란 제목을 맨 앞에 내세운 뒤에 1절의 나머지 부분을 한 문장으로 옮기고, 2절과 3절도 각각 독립 문장으로 번역했다. 『표준새번역』에서는 1절을 두 문장, 2절을 한 문장, 3절을 두 문장으로 나누어 1-3절을 모두 다섯 문장으로 번역했다. 천주교새번역

19) 주석가 가운데서는 이를테면 W. Rudolph, *Jeremia*, 2와 W. L. Holladay, *Jeremiah 1*, 14 가 1-3절 전체를 하나로 죽 이어 옮겼다.

20) 주석가 가운데서는 이를테면 Gunther Wanke, *Jeremia Teilband 1: Jeremia 1:1-25:14*, Zürcher Bibelkommentare AT 20,1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95), 27 가 그렇게 번역했다. 이와는 달리, S. Hermann *Jeremia*, 3-4 와 R. P. Carroll, *Jeremiah*, 89 과 P. C. Craigie, P. H. Kelly, and J. F. Drinkard, Jr., *Jeremiah 1-25*, 3 와 J. R. Lundbom, *Jeremiah 1-20*, 3; 221 은 1-2절과 3절의 둘로 나누어 옮겼다.

에서는 각 절을 한 문장으로 옮겼다²¹⁾.

(2) <디브레 이르므야후>라는 명사구로 시작하는 히브리 본문 1-3절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옮기면, 번역문은 어쩔 수 없이 대부분 문장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를테면, 『개역개정판』 2절에서 “...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할 때, 이는 “야훼의 말씀으로 그에게 임한 바”라는 히브리어 표현의 명사적 성격 곧 표제의 성격이 약화되고, 그 대신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 생겼다는 상황이 두드러지게 된다. 어찌 보면 이런 차이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서에는 ‘말씀’이 표제로 제시된 경우와 ‘말씀이 임했다’고 표현된 경우를 구별해 보아야 한다. 그 대표적인 보기로 이른바 성전 설교가 들어 있는 두 본문인 7장 1절과 26장 1절을 견주어 보자.

7:1 <핫다바르 아세르 하야 엘 이르므야후 메엣 아도나이 ... >

26:1 < ... 하야 핫다바르 핫제 메엣 아도나이 ... >

이 두 문장을 직역하면, 7장 1절은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 ...”으로, 26장 1절은 “... 이 말씀이 야훼께로부터 임했다 ...”로 옮길 수 있다. 7장 1절에서는 말씀이 임한 결과를 표현한다면, 26장 1절에서는 말씀이 임하는 사건 자체를 표현한다. 그리하여 7장 1절이 2-15절에 들어 있는 말씀의 표제라면, 26장 1절은 말씀이 임한 사건을 비롯하여 잇달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 2-24절, 더 정확히는 그 첫 부분인 2-6절의 도입부이다. 그에 맞추어 26장 2-6절에서는 7장 2-15절의 내용을 간추려 적고 있다.

그런데, 『개역개정판』에서는 7장 1절을 26장 1절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로 옮김으로써, 7장 1절이 지니는 표제의 성격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야훼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이다”라고 번역한 공동번역이 오히려 형식의 독특성을 그런 대로 잘 반영하고 있다.

“...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 ...” 형식의 표제는 11장 1절과 18장 1절과 21장 1절과 25장 1절²²⁾과 30장 1절과 32장 1절과 34장 1절과 8절과 35장 1절과 40장 1절과 44장 1절에도 나온다²³⁾. 이와 비슷한 표제로는 “야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

21) 주석가 가운데서는 이를테면 W. McKane, *Jeremiah 1*, 1 이 그렇게 번역했다. *Holy Bibl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에서는 1-3절을 여섯 문장으로 나누어 옮겼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각주 25)를 보라.

22) 25장 1절에서는 다만 <엘 이르므야후> 대신에 <알 이르므야후>가 나온다. 십수 개의 사본에서 <알>이 <엘>로 되어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이 둘은 같은 뜻을 지닌다.

2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아래 II.2(2)와 (3)에 나온다.

씀하신 말씀”(〈핫다바르 아세르 딤베르 아도나이 엘 이르므야후〉)가 46장 13절에, “야훼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핫다바르 아세르 딤베르 아도나이 … 브얏 이르므야후 …〉)이 50장 1절에, “예레미야가 말한 말”(〈핫다바르 아세르 딤베르 이르므야후〉)가 45장 1절에, “예레미야가 명령한 말”(〈핫다바르 아세르 치와 이르므야후〉)이 51장 59절에 나온다²⁴⁾.

(3) 앞에서 함께 살펴 본 히브리 본문의 짜임새를 따라 1-3절이 예레미야서의 표제라는 점을 살리는 방식으로 전체를 번역한다면, “¹베냐민 땅의 아나돗에 있던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며 힐기야의 아들인 예레미야의 이야기. ²⁻³곧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그가 왕이 된 지 열셋째 해에 그에게 야훼의 말씀으로 임했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열한 번째 해가 다하기까지, 예루살렘이 다섯째 달에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한 바.” 정도로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히브리 본문 1절 첫머리 두 낱말(〈디브레 이르므야후〉)과 2절의 첫 다섯 낱말(〈아세르 하야 드바르 아도나이 엘라우〉)이 표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살리면서 절 구분을 두드러지게 하려면, “¹예레미야의 이야기 - 그는 베냐민 땅의 아나돗에 있던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며 힐기야의 아들이었다 - ²곧 여호와와 말씀으로 그에게 임했던 바 - 이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그가 왕이 된 지 열셋째 해에 그에게 야훼의 말씀으로 임했고, ³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열한 번째 해가 다하기까지, 예루살렘이 다섯째 달에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한 것이었다.” 정도로 할 만하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내용의 동등성보다는 형식의 일치를 조금 더 중시한 번역이다. 내용의 전달을 더 쉽게 하려면, 1-3절의 독특성을 염두에 둔 채 글을 다듬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필요하다²⁵⁾.

24) 『개역개정판』에서는 46장 13절과 50장 1절의 경우에는 관계문 딸린 명사로 번역했으나, 45장 1절과 51장 59절의 경우에는 그냥 문장으로 옮겼다.

25) 최근에 나온 영어 번역본 성서 가운데서는, 성서 내용을 쉽게 바르게 이해하게 하면서도 성서를 공중 앞에서 낭독하고 기억하기 쉽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는 *Holy Bibl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의 예레미야 1장 1-3절 번역이 독특하다. 이 성서에서는 예레미야서의 표제를 완전히 재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풀어 번역했다: ¹My name is Jeremiah. I am a priest, and my father Hilkiah and everyone else in my family are from Anathoth in the territory of the Benjamin tribe. This book contains the things that the LORD told me to say. ²The LORD first spoke to me in the thirteenth year that Josiah was king of Judah, ³and he continued to speak to me during the rule of Josiah’s son Jehoiakim. The last time the LORD spoke to me was in the fifth month of the eleventh year that Josiah’s son Zedekiah was king. That was also when the people of Jerusalem were taken away as prisoner.

2. 예레미야서 여러 곳에 나오는 일정한 표현의 번역

어떤 히브리 표현이나 낱말이 구약성서의 한 책에 여러 번 나올 때, 문맥을 고려하다 보면, 그 번역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글의 흐름을 깨뜨리지 않는 한, 그런 표현이 들어 있는 여러 본문의 관계를 번역문에서도 알아차릴 수 있게 번역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두 경우만 살펴보기로 한다.

2.1 <헤팁 다르케켄 우마알레켄>(렘 7:3전하, 5전; 18:11후하; 26:13전상)

(1) 예레미야 7장 3절 전하반절²⁶⁾과 5절 전반절과 18장 11절 후하반절과 26장 13절 전상반절에는 거의 같은 표현이 나온다. 이 네 부분을 음역한 히브리 본문과 『개역개정판』 번역문으로 서로 견주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어와 술어동사	목적어
7:3전하	<헤티부	다르케켄 우마알레켄>
7:5전	<키 임 헤팁 테티부	옛 다르케켄 위엣 마알레켄>
18:11후하	<위헤티부	다르케켄 우마알레켄>
26:13전상	<위앗타 헤티부	다르케켄 우마알레켄>

	주어	목적어	술어동사
7:3전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7:5전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면 ²⁷⁾]
18:11후하	(너희는) ²⁸⁾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26:13전상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라 ²⁹⁾]

(2) 7장 3절 전하반절과 18장 11절 후하반절과 26장 13절 전상반절은 명령문이 고, 7장 5절 전반절은 조건문이다. 세 명령문에서 공통된 부분은 <헤티부 다르케

26) 이 글에서는 히브리 본문의 강세 부호 <아트나호>를 기준으로 한 절을 둘로 나누었을 때 앞 부분을 전반절로, 뒷 부분을 후반절로 부르고, 강세부호 <자켄 카톤>을 기준으로 전반절이나 후반절을 다시 둘로 나누었을 때는 각각 전상반절, 전하반절이나 후상반절, 후하반절로 부르기로 한다. 드물게 전반절이나 후반절 안에 <자켄 카톤>이 두 번 나올 경우에는 전반절이나 후반절이 다시 셋으로 나누어지므로, 각각 전상반절, 전중반절, 전하반절 또는 후상반절, 후중반절, 후하반절로 부르기로 한다.

27) 5절에서 시작된 조건문은 6절 끝까지 이어진다.

28) 이 문장의 주어는 후상반절에 이미 나와 있다.

29) 전상반절에서 시작된 명령문은 전하반절의 명령문으로 이어진다.

캠 우마알레캠>이다. 7장 5절 전반절에서는 술어동사를 강조하기 위해 히브리 절대형부정사가 먼저 나와 있는 점과 두 목적어인 <다르케캠>과 <마알레캠> 앞에 목적격 표시사 <엣>을 둔 점에서 나머지 세 경우와 다르다. 절대형부정사 <헤팁>은 ‘참으로’라는 부사로 번역되었지만, 목적격 표시사 <엣>은 번역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3) 그런데, 한글성경에서는 이 네 경우의 술어동사와 목적어와 주어를 조금씩 다르게 옮겼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자.

① 술어동사 <야탑>의 사역능동형을 『개역개정판』에서는 ‘바르게 하다’(7:3, 5), ‘아름답게 하다’(18:11)³⁰⁾, ‘고치다’(26:13)의 세 가지로 옮겼다. 『표준새번역』에서는 ‘고치다’(7:3; 18:11), ‘바르게 고치다’(7:5; 26:13)로 옮겼으며, 공동번역에서는 ‘고치다’(7:3, 5; 26:13), ‘뜯어고치다’(18:11)로 번역했다. 이 동사는 본디 ‘좋다’를 뜻하는 상태동사에서 비롯되어 ‘좋게 하다’를 뜻하는데, 그 목적어가 사람의 생활양식과 태도를 뜻하는 ‘길’이 ‘행위’일 때는 ‘바르게 하다’로 번역할 만하다.

② 목적어를 번역할 때, 명사 ‘길’에 붙어 있는 히브리 남성 단수 이인칭대명접미어를 『개역개정판』에서는 ‘너희’(7:3, 5; 26:13) 또는 ‘너희의’(18:11)로 번역했다. 『표준새번역』에서는 ‘너희’ 또는 ‘너희의’(7:3; 18:11; 26:13)로 옮기거나 뺐다(7:5). 공동번역에서도 ‘너희의’(7:5) 또는 ‘너희’(18:11)로 옮기거나 뺐다(7:3; 26:13). 우리 문장에서는 목적어에 붙는 소유격 인칭대명사의 성과 수와 인칭이 주어와 같을 때에는 그 소유격 인칭대명사를 반드시 쓸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위의 네 구절 가운데서 세 곳에서 이를 번역했다면, 나머지 구절인 7장 5절에서도 그리하는 것이 더 좋다. 또, ‘너희’는 ‘너희의’로 바꾸는 것이 낫다.

③ 같은 명령문인데 26장 13절에서는 명령의 대상을 ‘너희는’이라고 밝혀 놓았고, 7장 3절에서는 이를 따로 적지 않았다. 우리 말 문장에서 명령의 대상이 ‘너’인지 아니면 ‘너희’인지는 앞뒤 문장에서 곧 밝혀지므로,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7장 4절의 금지 명령문에서 ‘너희는’³¹⁾을 쓸 바에야, 아예 3절에서 ‘너희는’을 넣는 것이 좋겠다.

(4) 이리하여 이 네 구절의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면 더 나올 것이다.

30) 『개역한글판』에서는 ‘선하게 하다’로 옮겼다.

31) 이 ‘너희는’은 히브리 본문의 금지 명령 뒤에 나오는 ‘관여의 여격(dativus ethicus) <라캠>’을 고려한 번역으로 보인다.

7:3전하: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7:5전: 너희가 만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면]
 18:11후하: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26:13전상: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라]

2.2. <(핫다바르) 아세르 하야 드바르 아도나이 엘 이르므야후>

(1) “야훼의 말씀이 아무개에게 임했다”(<와여히 드바르 아도나이 엘 ... >)라는 문장은 창세기(15:1, 아브람³²)에서 시작하여 사무엘하(7:4, 나단)와 열왕기상(6:11, 솔로몬³³); 13:20, 벤엘의 늙은 예언자; 16:1, 예후; 16:7, 바아사; 17:2, 8; 18:1; 21:17, 28, 엘리야; 18:31, 야곱)을 거쳐 무엇보다도 예레미야서(1:2, 4, 11, 13 등, ‘나’ 또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서(1:3; 3:16; 6:1 등의 ‘나’)에 자주 나타난다. 이리하여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와여히 드바르 아도나이 엘 이르므야(또는 이르므야후)>)가 예레미야서에서는 산문 부분 단락의 도입부에 여러 번 나온다(28:12; 29:30; 32:26; 33:1, 19, 23; 34:12; 35:12; 36:27; 37:6; 42:7; 43:8). 이 히브리어 문장을 『개역개정판』에서는 “(그 때에)³⁴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³⁵에게 임하니라(또는 임하여)”로 옮겼다³⁶.

(2) 이와는 다른 형식의 도입부가 <핫다바르 아세르 하야 엘 이르므야후 메엣 아도나이 레모르>이다. 이는 <핫다바르>, 곧 ‘그 말씀’에 관계문이 붙은 꼴이어서 표제의 성격을 띠는데, 『개역개정판』에서는 이 도입부를 아래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로 옮겼다.

7:1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11:1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18:1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30:1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34:1 “ ...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5:1 “ ...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32) 이하 괄호 안에 적어 놓은 것은 그 ‘아무개’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이다.

33) 12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했다고 한다.

34) 32장 26절과 35장 12절에서만 히브리어 접속사 <와우>를 ‘그 때에’로 옮겼다.

35) 33장 1절에서는 히브리어 문장의 전반절과 후반절의 순서를 번역문에서 바꾸면서 후반절의 ‘그’를 ‘예레미야’로, 전반절의 ‘예레미야에게’를 ‘그에게’로 바꾸어 옮겼다.

36) 39장 15절에서는 <위엘 이르므야후 하야 드바르 아도나이>가 나오는데,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로 번역되어 있다.

25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로부터’가 없는 꼴로 나오는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로 번역되어 있다.

『공동번역』의 경우에 7장 1절은 “야훼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이다”로, 11장 1절은 “야훼께서 나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로, 18장 1절은 “야훼께서 나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로, 30장 1절은 “야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로, 34장 1절에서는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내렸다”로, 35장 1절에서는 “야훼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로, 문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옮겼다. 『표준새번역』의 경우에 7장 1절은 2절과 한데 묶어 풀어 옮긴 반면에, 11장 1절과 18장 1절은 “이것은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로, 34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은 ...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로, 30장 1절은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로, 35장 1절에서는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로 옮겼다. 『표준새번역개정판』에서는 ‘주’를 ‘주님’으로 바꾸었을 따름이다. 『공동번역』과 『표준새번역』에서는 이처럼 어떤 때에는 히브리 관계문을 살려 번역했고, 어떤 때에는 관계문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번역했다.

맨끝의 <레모르>는 번역하지 않아도 괜찮고, 히브리 관계절의 어순에 특별한 점이 없으므로, 히브리 본문을 직역하면,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으로 통일해서 옮길 만하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는 식으로 옮길 경우에, 이는 동사문장인 <와여히 다바르 엘 이르므야후 메엣 아도나이>의 번역으로 오해될 수 있다. 계시의 결과인 ‘말씀’에 초점을 두는 히브리 표현을 말씀 계시 사건 자체를 말하는 히브리 문장과는 구별하여 번역할 필요가 있다.

(3) 또 여기서 <레모르>가 없는 경우, 곧 <핫다바르 아세르 하야 엘 이르므야후 메엣 아도나이>도 더러 나오는데, 그 번역도 『개역개정판』에서는 여러 가지이다.

- 21:1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 ”
- 32:1 “ ...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 34:8 “ ...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 40:1 “ ...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형식에서 <메엣 아도나이>가 빠진 꼴을 44장 1절에서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로 번역했다. 공동번역과 『표준새번역』에서는 앞 (2)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위 (2)를 따라, (3)의 경우에도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

에게 임한 말씀”(21:1; 32:1; 34:8; 40:1)이나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44:1)으로 통일하여 옮기는 것이 좋다.

(4) <핫다바르>라는 선행사 없이 그저 <아세르 하야 드바르 아도나이 엘 이르므야후>만 있는 꼴로 더러 나오는데, 이를 『개역개정판』 14장 1절과 46장 1절과 47장 1절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와 말씀이라”로, 49장 34절에서는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로 옮겼다. 49장 34절의 경우에는 뒤이어 나오는 <레모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번역』의 경우에 14장 1절은 풀어서 옮겼고, 46장 1절과 49장 34절에서는 “야훼께서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말씀”으로 47장 1절에서는 “야훼께서 예레미야를 시켜 일러주신 말씀”으로 옮겼다. 『표준새번역』의 경우에 14장 1절에서는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로, 46장 1절에서는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다”로, 47장 1절과 49장 34절에서는 “이것은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로 옮겼다. 『표준새번역개정판』에서는 ‘주’를 ‘주님’으로 고쳤을 따름이다.

<아세르 하야 드바르 아도나이 엘 이르므야후>를 직역하면, “야훼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한 바” 정도가 된다.

3. 구약의 다른 책의 일부분이 예레미야서에 인용되어 있는 경우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 미가서 3장 12절을 인용한다. 『개역개정판』으로 두 구절을 서로 견주어 보면 다음과 같다

렘 26:18	미 3:12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밭 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였으나	

이 가운데서 공통되는 부분인 “시온은”부터 “되리라”까지 해당되는 부분을

마소라 본문으로 서로 견주어 보면, ‘무더기’에 해당하는 낱말이 예레미야 26장 18절에는 <이임>인 반면, 미가 3장 12절에는 <이인>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만 다르다. 그런데 『개역개정판』에서는 두 구절을 상당히 다르게 옮겨 놓았다. 이러한 차이는 『개역한글판』에 나타난 차이보다 더 크다. 공동번역에서도 이 두 구절을 다르게 옮겨 놓았다. 공통된 부분만 옮겨 적으면 아래와 같다.

시온이 갈아엎은 밭 모양이 되고	시온이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며,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성전 언덕이
잡초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리라	잡초로 뒤덮이게 되거든,

이와는 달리 『표준새번역』에서는 이 두 부분을 똑같이 번역해 놓았다.

세 동사 문장 모두 주어를 동사보다 앞세워 강조한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시온이 밭처럼 갈아젓혀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며, 성전 산이 수풀 언덕이 되리라” 정도로 통일하면 좋겠다.

4. 예레미야서 본문이 신약에 인용된 경우

예레미야 본문이 신약에 비교적 길게 인용된 경우로는 마태복음 2장 18절과 히브리서 8장 8-12절과 10장 16-17절을 들 수 있다. 이 세 부분에서는 각각 예레미야 31장 15절과 31-34절과 33-34절을 인용하고 있다. 『개역개정판』으로 보면, 그 번역에 그리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아래에서는 첫 두 경우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4.1. 예레미야 31장 15절과 마태복음 2장 18절

렘 31:15	마 2:18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라마에서 슬퍼하며	말씀하신 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마에서 슬퍼하며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표준새번역』에서 두 구절이 제법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울부짖으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표준새번역개정판』에서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도입부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에서 ‘이렇게’를 뺐다. 또 마태복음 2장 18절의 ‘애곡하는’을 ‘슬피 우는’으로 바꾸었다.

『공동번역』에서는 두 구절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옮겼다.

나 야훼가 말한다.	
라마에서 통곡소리가 들린다.	“라마에서 들려 오는 소리,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린다.	울부짖고 애통하는 소리,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구나.	자식 잃고 우는 라헬,
그 눈앞에 아이들이 없어	
위로하는 말이 하나도	위로마저 마다는구나!”
귀에 들어 가지 않는구나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8절 그리스어 본문³⁷⁾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칠십인역 본문³⁸⁾과도 다르고 히브리 본문과도 다르다. 이를 한글로 직역하여 나란히 적어 보면 아래와 같다.

렘 31:15 마소라 본문	렘 31:15 칠십인역	마 2:18 그리스어 본문
이처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이처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렸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렸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렸다

37) Barbara Aland, et al., eds.,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27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38) Joseph Ziegler ed., *Ieremias, Baruch, Threni, Epistula Ieremiae*, 2nd ed., *Septuaginta Vetus Testamentum Graecum XV*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6).

애가, 쓰라린 울음	애가와 울음과 애도의	울음과 많은 애도로다
라헬이 자기 자식들 때문에	라헬이	라헬이 자기 자식들 때문에
울고 있도다	울고 있도다	울고 있도다
위로받기 거절하도다	자식들 때문에 그치려 않도다	그리고 위로받으려 않도다
자식들 때문에,		
그들이 없기 때문이라	그들이 없기 때문이라	그들이 없기 때문이라

이로 보면, 마태복음 2장 18절 그리스어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15절 칠십인역 본문이나 마소라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님이 드러난다. 이럴 경우에는 마태복음 그리스어 본문을 따르되, 예레미야 마소라 본문에 상응하는 요소를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말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개역한글판』이 ‘슬퍼하며’로 옮긴 히브리어 명사 <느히>에 상응하는 그리스어 낱말이 마태복음 2장 18절에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 『개역한글판』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통곡하며’로 옮긴 히브리어 표현 <브키 탐루밈>(직역하면 ‘쓰라림의 울음’, 곧 ‘쓰라린 울음’)에서 둘째 낱말 <탐루밈>에 상응하는 그리스어 명사 <오뒤르모스>에 마태복음에서는 <플뤼스>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다³⁹⁾. 이리하여 마태복음 2장 18절 첫 부분은 “라마에서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4.2. 예레미야 31장 31-34절과 히브리서 8장 8-12절

『개역개정판』으로 예레미야 31장 31-34절과 히브리서 8장 8-12절을 나란히 옮겨 적어 보면 아래와 같다.

예레미야 31장 31-34절	히브리서 8장 8-12절
	⁸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³¹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불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⁹ 또 주께서 이르시되
³²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39) M. Knowles, *Jeremiah in Matthew's Gospel: The Rejected-Prophet Motif in Matthaean Redactio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Supplement Series 6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36 에서는 <탐루밈>을 뜻을 다라 <플뤼스>로 번역한 것으로 이해한다.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³³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¹⁰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³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¹¹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니라 ¹²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공동번역』과 『표준새번역』에서는 이 두 군데 본문을 서로 그리 관련시키지 않고 각 문맥에 맞추어 비교적 자유롭게 풀이해서 번역했다.

예레미야 31장 31-34절 마소라 본문과 칠십인역과 히브리서 8장 8-10절 그리스어 본문을 직역하여 나란히 놓아 보면 아래와 같다.

렘 31:31-34 마소라 본문	렘 31:31-34 칠십인역	히 8:8-10 그리스어 본문
³¹ 보라, 날들이 오리라 - 야훼의 발언 - 그리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또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겠다 ³² 내가 그들의 선조들을 손잡고	³¹ 보라, 날들이 오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도다, 그리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또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겠다 ³² 내가 그들의 선조들을 손잡고	⁸ 그들을 나무라며 이르시리라. 보라, 날들이 오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도다, 그리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또 유다 집과 새언약을 맺겠다 ⁹ 내가 그들의 선조들을 손잡고

애굽에서 이끌어 낸 날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도다 내가 그들의 주인인데도 - 야훼의 발언 - ³³ 이는 그 날들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임이로다 - 야훼의 발언 - 내가 내 가르침을 그들 가운데 두고 그들의 마음에 내가 그것을 적으리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³⁴ 그리하면 각자 자기 벗에게도 형제에게도 야훼를 알자라고 다시는 가르치지 아니하리라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부터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이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임이라 - 야훼의 발언 -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애굽에서 이끌어 낸 날 그들과 맺은 언약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아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도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도다, ³³ 이는 그 날들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임이로다, 주께서 말씀하시도다 내가 내 가르침들을 그들의 심정 안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내가 그것들을 적으리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³⁴ 그리하면 각자 자기 벗에게도 형제에게도 주를 알자라고 결코 가르치지 아니하리라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부터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이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임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들에 대해 자비롭고 그들의 죄를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애굽에서 이끌어 낸 날 그들과 맺은 언약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아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도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도다, ¹⁰ 이는 그 날들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임이로다, 주께서 말씀하시도다 내가 내 가르침들을 그들의 심정 안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내가 그것들을 적으리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¹¹ 그리하면 각자 자기 벗에게도 형제에게도 주를 알자라고 결코 가르치지 아니하리라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부터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이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임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들에 대해 자비롭고 그들의 죄를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	---	--

‘말하다’라는 동사로 칠십인역에서는 <페미>를, 히브리서에서는 <레고>를 쓰는 등으로 어휘 선택에서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보아, 히브리서는 마소라 본문 보다는 칠십인역에 더 가깝다. 『개역개정판』의 두 군데 본문번역이 그런 대로 괜찮아 보인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서 히브리 본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데 생각해야 할 여러 문제 가운데서 네 가지를 몇몇 보기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밖에도, 일정한 히브리 표현이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구약성서의 다른 책에도 나올 경우에 이를 어떻게 관련성 있게 번역할 것인지, 히브리 문장에서 강조하는 바나 두 가지 뜻

을 지니는 히브리 낱말을 우리말로 어떻게 알맞게 번역할 것인지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 주요어

구약성서 예레미야서, 형식의 일치, 내용의 동등성, 히브리 본문, 번역의 실제.

* 참고문헌

- 『성서 공동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예레미야 · 바룩』, 정태현 번역, 구약성서 새 번역 8,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6.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 Holy Bibl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1995.
- 박동현, “개역한글판의 히브리어 고유명사 한글 음역 방식과 히브리어 한글 음역 시안,” 『성경원문연구』 8 (2001), 106-157.
- 피터 크레이기 외 지음, 『WBC 성경주석: 예레미야 1-25』, 권대영 옮김, 서울: 솔로몬, 2003.
- 한글학회 엮음, 『우리말큰사전』, 서울: 어문각, 1992.
- Carroll, Robert P., *Jeremiah*,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86.
- Craigie, Peter C., Kelly, Page H., and Drinkard, Joel F. Jr., *Jeremiah 1-25*, Word Biblical Commentary 26, Dallas, Texas: Word Books, 1991.
- Herrmann, Siegfried, *Jeremia*,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XII/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6.
- Holladay, William L., *Jeremiah 1: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Chapters 1-25*,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 Knowles, Michael., *Jeremiah in Matthew's Gospel: The Rejected-Prophet Motif in Matthaean Redactio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Supplement Series 6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 Lundbom, Jack R., *Jeremiah 1-20*, The Anchor Bible 21A, New York: Doubleday, 1999.
- McKane, William., *Jeremiah. Vol. I: Introduction and Commentary on Jeremiah I-XXV*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T Clark, 1986.
- Min, Young-Jin., “The Two Different Books of Jeremiah Should Be Edited Independently and Sequentially,” 『성경원문연구』 7 (2000), 61-99.
- Rabin, C., Talmon, S., and Tov, E., eds., *The Book of Jeremiah*, Hebrew University Bible Project 2, Jerusalem: Magnes Press, 1997.
- Rudolph, Wilhelm ed., *Liber Jeremiae*,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8, Stuttgart: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970.

- Rudolph, Wilhelm., *Jeremia*, 3rd ed.,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12, Tübingen: J. C. B. Mohr, 1968.
- Wanke, Gunther, *Jeremia* Teilband 1: *Jeremia 1:1-25:14*, Zürcher Bibelkommentare AT 20,1,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95.
- Ziegler, Joseph, ed., *Ieremias, Baruch, Threni, Epistula Ieremiae*, 2nd. ed., Septuaginta Vetus Testamentum Graecum XV,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6.

<Abstract>

Some Practical Problems in Translating the Book of Jeremiah

Prof. Dong-Hyun Park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this article we take a look at some practical problems encountered in translating the Hebrew Bible into Korean, specifically centered on the Book of Jeremiah. The first text we look at is Jer. 1:1-3, the long and complicated superscription of the Book, showing the grammatical, structural and lexicographical features of the translation process. Secondly, we examine the translational consistency of some stereotyped expressions in the Book, such as ‘to make ways and actions good’ (7:3, 5; 18:11; 26:13) and “the word which came to Jeremiah” (7:1; 11:1; 18:1; 21:1 etc.). Thirdly, the translations of the parallel verses of Mi. 3:12 and Jer 26:18 in Korean Bibles are evaluated. Lastly, Matt. 2:18 and Heb. 8:8-12 are examined respectively in comparison with Jer. 31:15 and 31:31-34 with regard to their translation into Korean.